

# ‘도심포교 성공모델’ 대관음사서 배우다

## 접근성·재정 확보·특화사업·지역신도 관리 및 모임 세분화 등 포교 노하우 전수

고즈넉한 산중 불사도 천년의 역사가 담긴 고찰도 아닌, 대구 도심 한복판에 13만 명의 신도가 모인 절이 있다. 그 절의 주지스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포교를 했을까?

전법도량위원장 심산·홍법사 주지는 8월 25일 오후 3시 ‘도심포교의 성공모델’로 인정받은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방문해 주지 우학 스님으로부터 16년 포교 노하우를 배웠다.

이날 답사에는 전법도량 의장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반야원 주지 목종 스님, 동명불원 주지 정산 스님, 수도사 주지 일철 스님, 미타선원 주지 하립 스님, 해남사 주지 만초 스님, 반산 스님을 비롯해 각 사찰의 임원진 신도까지 약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후 3시부터 관음사 스님과 신도들로 구성된 봉사자들의 안내로 총 4개 동,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된 사찰 곳곳을 답사했다. 스님들은 실제 유골함이 모셔진 대웅전 건물 2층의 납골당과 5층의 부처님 진신사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주지 우학 스님과 대담을 나누며 포교노하우를 전수받은 전법도량 스님과 신도들.

12기가 모셔진 적멸보궁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납골당의 경우 몇 년간 보관되고 비용이 발생하지, 법적 규제는 어떤지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했다.

한편 신도들은 보통 “성불하세요”라고 하면 자신들의 인사법과 달리

“관세음보살”이라는 봉사자들의 색다른 인사법에 놀랐다. 또 경내 곳곳에 부착된 공지사항과 게시물 등을 꼼꼼히 챙겨보고 사진촬영 및 메모를 통해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어 육불보전 6층 국제회의실에

서 주지 우학 스님의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포교 방법과 성공사례’를 주제로 기초연설을 갖고 전법도량 회원들과 대담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의 성공 비법으로 ▲도심 사찰로 접근이 용이 ▲‘108통장’ 등으로 꾸준한 재정 확보 ▲기도 도량 아닌 불교 교육대학으로 특화사업 ▲침단 방송장비 통해 동시법회로 지역 신도 관리 ▲신도회 아닌 기수별 신도모임으로 일체 단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1시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전법도량 의장 심산 스님은 회원들에게 “여기 와서 보고 느꼈던 것들을 생각해 그치지 말고, 각자의 사찰에 돌아가서 단 한가지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법도량은 2007년 10월 부산을

비롯해 경남, 울산에서 활동하는 조계종 스님을 중심으로 사찰 및 신행단체, 신도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대 흐름에 맞는 열린 불교를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포교인의 모임이다. 그래서 부처도 ‘포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정기모임을 갖고 포교 및 사찰 운영에 관해 상호 간의 협력할 예정이다. 또 ‘바람직한 포교활동의 나아갈 길’에 관한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전법도량은 10월 자선 바자회, 11월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적멸보궁을 순례할 예정이다. 또 ‘바람직한 포교활동의 나아갈 길’에 관한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 “염불, 자비광명 이르는 길”

### ‘오롱골에는 여자가 없다’ 출판기념회

경남 양산 오롱산 깊은 계곡에서 홀로 수행 정진하는 정도원 정목 스님(사진)의 구도수필집 <오롱골에는 여자가 없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8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동백홀에서 열린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부산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을 비롯한 1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여 스님은 축하법문에서 “정목 스님은 오롱골에 정도의 꽃을 피운 스님”이라며 “앞으로도 정도의 대가로서 이 시대 정도 사상의 바른길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저자 정목 스님은 “이 자리를 열어준 진행요원 및 사회자, 축하공연 등 모두가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도량의 불자들”이라며 불멸으로 맺은 인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이 책에 담긴 염불수행은 자비광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대중 불교의 혁명을 가능케 할 것”이



라고 소개했다.

이 책은 수행자의 일상을 평범한 문체로 이야기하듯 엮어낸 책으로 제목 <오롱골에는 여자가 없다>는 정도에는 남녀를 분별하는 경계와 사계절을 구분하는 경계가 없는 절대 평등의 세계란 뜻이 담겨있다.

정목 스님은 현재 한국 정도학회 이사로 있으며 양산 오롱골 정도원에서 염불 정진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전법에도 힘쓰고 있다. cafe.daum.net/amiapa 박지원 기자

## “부처님 말씀 시대와 함께 하도록 노력”

### 지안 스님 전등강맥 전수법회...청원·도산·인해 스님 전수

백과 공선 스님으로부터 처명(1858-1903), 정호(1870-1948), 율하(1892-1980), 해룡(1928-현재) 스님으로 내려오는 강맥이 청원 스님 등으로 이어지는 전등강맥 전수법회가 봉행됐다.

8월 29일 오전 11시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에서 봉행된 이번 법회에서는 청원(동국대 선학과 강사), 도산(송광사 강원 강사), 인해(수덕사 강원 강사) 스님이 지안 스님의 강맥을 전수받았다.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은 “이번에 전강 받는 세 분의 스님들은 강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현직 강사스님들”이라며 “강원의 교과목인 내전을 지도하는 것과 더불어 불교가 현대의 지식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동서양의 학문을 두루 섭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청원·도산·인해 스님이 지안 스님으로부터 전등강맥을 전수받았다.

전등강맥이란 부처님과 스승의 학적을 토대로 제자에게 물려주는 의식이다. 강(講)할 능력을 인정받은 강사에게 대중이 삼배를 올리

고 스승은 그 강사에게 법호를 내린다.

이것으로 전강을 받은 제자는 해당법법을 통해 공인을 받게 된다. 박지원 기자

# 소리

## 세상을 떠나 세상의 소리를 풀어내다

저자 일선 스님  
신국판 양장본  
12,000원

송광사에서 10여 년 동안 수행의 한 방편으로 수련회를 이끌었고  
거금도 섬으로 들어간 뒤 풍문으로 혹은 신문기사로 접하던 스님의 그간 이야기

스님이 세상에 “소리”를 내 보임은  
쭝뿡 하늘 같이 푸른 바다를 벗 삼아  
텅 빈 가슴으로 욕심 없이 보낸 세월의 흔적을  
홀로 간직하기엔 너무나 큰 아쉬움이  
절절히 사무치겠다 싶어서였지요.

“한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낸 후에  
世上 밖으로 나와 허물을 벗고  
시원스럽게 울어대는 매미처럼  
道伴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 수물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일선 스님  
일찌기 의문을 품고 조계산 송광사에서 범종 화상을 은사로 두드  
중양승가대학 졸업, 봉암사를 비롯 제방선원에서 정진  
송광사에서 10여 년간 수련회를 이끌었으며 거금도에서 안거 정진 중  
금천선원 선원장

에세이 식으로 잔잔하게 풀어진 글들은 모두 한 곳으로 가 닿는다. 수행이  
다. 파도소리도 갈매기 울음도 이름모를 허브, 등대도 눈길 닿고 발길 가  
는 것 모두가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

- 불교신문

서울의 유명 꽃집에 전시된 매끈한 장미가 아니라 산길에서 마주한 청초한  
야생화라곤 할까요, 심지어 선의 지혜로 풀어 쓴 한편의 아름다운 서정  
시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스님의 글을 읽다보면 간혹 거금도의 모래  
밭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일 겁니다.

- 법보신문

망망한 바다에서 나침반이 있다는 안도감은 방향의 희망을 암시하듯 예  
이 <소리>는 인생의 겸허한 나침반이 되고자 한다. 파도소리를 도우(道友)  
삼아 세월의 바람에 밀릴한 하심을 띠운다.

- 현대불교신문

이 책에서 “마음이 부처라고 분명하게 믿고 깨달으면 사람마다 부처이므로  
생각이나 수행방편, 하는 일이 다르다고 다를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아무  
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를 배우라”고 강조한다.

- 한국경제신문

**클리어마인드** CLEAR MIND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두산워터파빌론 736호  
전화: (02) 2198-5151 전송: (02) 2198-5153

불국토를 찾아서

부산 어린이대공원 앞 무료급식소

## 나눔의 삶 실천하는 진짜 부처님

“우리 어머니, 매일 오시더니 이제 혼자서도 척척이시네요. 된장도 썰프입니까?”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입구에 봉사봉사단이 됐다. 부산시 비영리민간단체 ‘아름다운사람들(대표 권경일)’이 마련한 급식소에 매주 불광사(주지 보광), 성암사(주지 응현), 삼광사(주지 영제),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기) 등 부산지역 신행단체들이 무료급식 봉사활동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들 모임은 각자 요일을 정해 놓고 돌아가며 자체 준비한 정성스런 음식들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부산진구 초읍동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 하루 평균 180여 명 정도 찾고 있다.

오늘의 메뉴는 청양고추로 맛을 낸 갈갈한 추어탕과 찜닭, 어르신들은 추어탕에

남들에게 있었다. 막내 전득수(73) 할머니와 양라대(76), 안도순(81) 할머니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지, 원력으로 하는 거니까. 뭘 유별나게 신문에 실으려고 해”라는 손사래에 여유와 겸손이 배어들어 있다. 부처님의 자비행인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부처님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박경옥 실장은 이곳 200여명의 어르신들의 딸을 자칭했다. “언젠가 고맙다고 찜닭 몇 알을 내미시던 할머니가 한동안 안보여서 걱정했는데 얼마 후에 그분 딸이 찾아와 돌아

가셨단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마음이 찡했다”며 그 후 어르신들에게 찜닭처럼 공양해야겠단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계모임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 다섯



## 부산 신행단체들 앞다퉈 급식 봉사 참여

밥을 맡아서 한 그릇, 찜닭한 아주 개리알에 시골편지 넣어 찜 찜 찜나라 또 한 그릇해, 꼭 두 그릇씩 한 상 푸짐하게 드셨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이곳에서 점심을 드신다는 김복순 할머니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이만큼 잘 대접해주겠어요. 식구도 이렇게는 못하는데...”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곁을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온 안상이 할아버지도 “그저께는 갈비탕도 맛있게 먹고요, 여름이라고 오이냉국, 콩국도 먹었고 맛있어서 한동안 집밥 먹으면 여기 밥이 그리구나. 허허...”라며 음식맛을 칭찬했다.

가다로운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바로 19년이 넘는 세월을 한결 같이 지켜온 보살

사람이 김치 한 봉지씩만 갖고 와도 200분이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다”며 봉사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민옥정(34) 씨도 역시 신심 있는 불자다.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신청하게 됐다면서 “집에서도 하는 요리며 설거지지만 어르신들 대접하는 거라 더 예의바르고 잘 해드리려고 노력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시30분부터 약 1시간동안 200여명의 어르신들은 식사를 마친 후에도 떠나지 않고 급식소 주변 나무그늘에 삼삼오오 모여앉아 제법 신선해진 가을바람을 벗삼아 오래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지원 기자